

논문

## 정치평론에서의 ‘Lexis’와 ‘Logos’\*

이동수(경희대)

### 〈 국문초록 〉

정치체계를 구성하는 정치행동가, 정치사상가, 정치평론가는 말을 통한 정치적 행위를 한다. 이때 정치행동가의 말은 자신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원하는 일종의 수사(rhetoric)에 불과하며, 정치사상가의 말은 지나치게 진리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어려움이 많은 반면, 정치평론가의 말은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subjective opinion)을 공론장에서 개진하여 사회구성원들의 공감을 얻고 공적 의견(public opinion)으로의 합의를 기대하며 궁극적으로 이런 합의를 통해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정치평론이 이와 같은 역할을 온전히 하려면 아렌트(H. Arendt)가 말하는 말의 ‘lexis’적 차원과 하버마스(J. Habermas)가 말하는 말의 ‘logos’적 차원이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 즉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진정성(authenticity)과 진실성(truthfulness)을 갖고 ‘lexis’로 말하며, 이를 의사소통적 ‘logos’ 형성 과정을

---

\* 이 글에서는 그리스어인 ‘lexis’와 ‘logos’를 한글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자 한다. 여기서 ‘lexis’는 스토리적인 말(speech)을 의미하며 logos는 말이 정리되고 체계화된 논리(logic)의 측면을 지칭하는데, 이 두 용어가 하나의 언어(language) 속에 내재되어 있는 두 차원이라는 대조성을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언어의 두 차원을 나누어 살피는 것은 흔히 사용되는 언어학자 소쉬르(F. Saussure)의 구별법과 다른 면이 있다. 소쉬르는 언어의 형식에 주목하여 문자적인 속성(langue)과 구술적인 속성(parole)로 나누고 있는데 비해, 여기서의 구별법은 언어의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자기구술적이며 체계화되지 않은 원재료적 언어로서의 ‘lexis’와 체계화되고 논리적인 언어로서의 ‘logos’를 나누는 것이다.

통해 구성원 간의 상호이해를 얻고 합의에 도달하는 두 차원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 정치세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치평론은 정치가나 일반대중의 경우 ‘logos’를 결여함으로써, 정치사상가나 지식인의 경우 ‘lexis’를 결여함으로써 한계를 지닌다.

주제어: 정치평론, 언어, 렉시스, 로고스, 아렌트, 하버마스

## I. 서론

필자는 예전의 한 논문에서 정치세계를 구성하는 정치적 인간(political man)을 세 종류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sup>1)</sup> 정치행동가(political actor), 정치사상가(political thinker), 정치평론가(political critic)가 그것이다. 먼저 정치행동가란 정치세계의 현장에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며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현실을 움직여나가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 가운데 공직을 담당하거나 공적으로 책임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정치가(statesman)라 부른다. 둘째, 정치사상가는 끊임없이 정치의 이념과 사상을 천착함으로써 보편적인 정치 일반(politics in general)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다. 그는 정치현실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 일반에 비추어 정치세계를 바라보고 평가한다. 셋째, 정치평론가는 이 두 부류의 중간쯤에 있는 사람이다. 그는 정치행동가와 같이 직접적인 정치행위를 하지는 않지만 현실정치에 몸담고 있으며, 정치사상가처럼 고상한 정치 일반에 대한 지적인 탐구를 하지는 않지만 현실정치에 대해 말하고 대화하며 비판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1) 이동수, “함석헌과 정치평론”, 『한국정치학회보』, 35집 4호(2001), 88.

아렌트(Hannah Arendt)의 주장처럼 정치세계가 행위(deed)와 말(word)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때,<sup>2)</sup> 정치행동가란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 정치세계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지칭하며 정치사상가와 정치평론가는 주로 말로써 정치세계와 관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물론 정치행동가도 말을 사용한다. 하지만 그는 본시 말보다 실천적 행동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의 말은 수단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정치행동가의 말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원하는 일종의 수사적(rhetoric) 말이다. 이런 말은 대개 연설이나 선언 형식으로 나타나며, 이 말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는 청자(聽者)들로 하여금 그 말을 믿고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정치사상가와 정치평론가는 무엇보다도 말을 통해 정치세계와 관계한다. 하지만 정치사상가가 사용하는 말과 정치평론가가 사용하는 말은 그 종류에 있어서 다르다. 정치사상가는 보편적인 이념과 사상을 추적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logos’로서의 말을 사용한다. 이 ‘logos’로서의 말은 진리추구적·논리적이라는 점에서 철학적 언어이며 episteme(진리 혹은 진리적 지식)<sup>3)</sup>를 지향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현실세계와 동떨어진 경우가 많으며, 말의 논리적 정합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이 그 상황에 적합한 말인지는 의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사상가의 말은 비록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당대의 정치세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대신 후세에 윤리적 지침으로 작동한다.

---

2) Hannah Arendt, *The Human Condition*(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24. 이하 HC로 약함.

3) ‘lexis’와 ‘logos’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episteme(진리)와 doxa(의견)에 있어서도 한 글로 번역하는 대신 그리스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개념들이 진리와 의견이라는 번역된 용어보다 그 둘 사이의 대조성을 더 잘 두드러지게 나타내기 때문이다. 다만 문맥상 필요한 경우, doxa는 의견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사용될 것이다.

이에 비해 정치평론가의 말은 어느 특정한 정치현실 속에서 화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알려 서로 소통하며, 사회적으로 공분과 공론을 불러일으키고, 정치 현실을 비판하면서 대안을 찾고자 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언어는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거나 episteme적이라기보다는 화자(話者)의 개인적·주관적 의견(subjective opinion)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doxa적이며, 무엇보다도 이야기로서의 말 즉 ‘lexis’적 성격을 지닌다. 여기서 ‘lexis’로서의 말은 언어(language)의 정합성이나 논리성에 입각한 말이 아니라, 당시의 고유한 상황에 대하여 화자가 자신의 주관적 경험이나 의견을 포함시켜 타자와 소통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평론가의 말은 보편성(universality)이 아니라 고유성(uniqueness)을 갖는다.

그러나 ‘lexis’적 정치평론이 화자의 주관적 의견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여 하나의 공동세계(common world)를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 말은 청자들에게 그 의견에 대한 공감이나 합의를 이끌어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이나 합의는 ‘lexis’로서의 말에 ‘logos’적 차원을 부여한다. 왜냐하면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주장처럼 ‘logos’적 차원이 없다면 그 말에 대한 공동 이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언어의 본질적 목적은 바로 이해와 합의에 있기 때문이다.<sup>4)</sup> 그리고 이러한 이해와 합의가 없다면 개인의 주관적 의견이 공적인 의견 즉 공론(public opinion)으로 승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말의 ‘logos’적 차원을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이성(communicative reason)이라 부른다.

정치평론은 정치행동과 정치사상의 중간지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정

---

4) Jürgen Habermas,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1(Boston: Beacon Press, 1984), 287.

치사상이 말의 진리를 지향하고 정치행동이 권력을 추구한다고 할 때, 정치평론은 ‘말의 권력화’를 추구한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정치평론에서 사용되는 권력화의 말이 갖는 이중적 성격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치평론의 말은 언어의 ‘lexis’와 ‘logos’적 측면을 모두 갖고 있으며, 또 이 경우에만 정치평론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치평론은 자신의 위상을 정립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리고 현실의 정치평론들은 이러한 이중성에 직면하여 ‘lexis’로서의 말에 그치거나 ‘logos’로서의 말에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다. 혹은 정치평론에서의 ‘logos’를 정치사상에서의 ‘logos’로 착각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 글은 정치평론에서 사용되는 말이 ‘lexis’적 차원과 ‘logos’적 차원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야 훌륭한 정치평론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아렌트의 ‘lexis’로서의 말에 대해 알아보고, 하버마스가 말하는 상호이해와 합의로서의 ‘logos’적 차원을 살펴본 후, 이 두 차원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또 이러한 이론적 틀에 비추어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치평론에 대한 평론적인 입장을 표명해보고자 한다.

## II. 아렌트에 있어서 말의 ‘lexis’ 차원

아렌트는 정치를 경제와 구분한다. 사사로운 사적 영역(private realm)에서 자신의 생존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수행하는 경제활동과 달리, 정치란 시민들이 공적 영역(public realm)에서 자신을 드러내어 타인과 소통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행위(action)를 통해 불멸성(immortality)을 획득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정치적 활동은 말(lexis)과 행동

(praxis)으로 구성된다.

정치평론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말로 행하는 정치 활동의 측면이다. 말이 중요한 정치적 행위인 이유는 그것이 단지 의사소 통이나 정보교환을 위한 수단적 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말을 통해 시민 들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그 개성들이 인간의 조건인 다원성(plurality) 을 이루며 세계를 구성함으로써 결국 인간을 공동체적 존재로 만들어 가 기 때문이다.<sup>5)</sup>

특히 아렌트는 정치적 말의 목적이 설득하는(to persuade, peithein) 데 있다고 본다. 정치적이라는 것은 폴리스라는 공동체를 구성하여 거기서 타인들과 함께 산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폭력의 사용을 피하고 말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자신을 야만인과 구분하면서 사용했던 기준은 바로 정치적 문제를 강압(compulsion)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 즉 설득(persuasion)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였다. 또 설득의 여신인 페이토(Peitho)의 신전이 아테네에 있었다는 사실도 설득의 정치적 중요성을 잘 나타내준다. 요컨대 고대 그리스인들은 설득을 가장 높고 진정으로 정치적인 기술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설득은 화자가 말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말이 지나치게 개인의 자의적인 말이라거나 혹은 반대로 절대적인 진리추구적인 말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 이다. 그리스어로 의견(doxa)이란 “나에게 드러나는 것”(dokei moi: what

---

5) 바흐친(Mikhail Bakhtin) 역시 말이 공동체를 구성한다고 본다. 특히 그는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대화 속에서는 자아성(ipseity)이 아니라 타자성(alterity)를 찬양하게 되어 타인을 이해하고 공동체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Mikhail Bakhtin, *The Dialogic Imagination: Four Essays by M. M. Bakhtin*, ed. Michael Holquist and trs. Caryl Emerson and Michael Holquist(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81).

appears to me)을 말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의견이란 “나에게 열려지는 것 그 자체로서의 세계를 이해”<sup>6)</sup>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견이란 진리(episteme)와 같이 모두에게 절대적이고 타당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속한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르게 열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자의적이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세계가 우리 모두에게 열리기 때문이다. 요컨대 의견이란 동일한 세계가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화자를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서 이때 어떤 의견이 다른 의견과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의견을 말한 화자 자신의 개성이 스스로 드러나는 데서 비롯된다.

어느 의견이 제시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taste)에 따라 쾌/불쾌를 나타내며 그것을 판단한다. 그런데 이 판단이 사적이고 주관적인 것은 아니다. 아렌트는 이 판단이 기본적으로 공통의 감각에 입각한 판단으로서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본다. 즉 취향이라는 우리의 감각이 작용할 때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공통적이라는 느낌에 바탕을 두고 “누구나 다 나와 같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그 속에는 타인에 대한 고려가 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렌트는 이와 같이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 즉 취향의 바탕을 이루는 것을 칸트를 좇아 공통감(sensus communis)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에 어울리게 해주는 (...) 고유의 감각”이라는 의미에서 공동체 감각(community sense)으로 해석되거나, 혹은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공동의 감각이라는 의미에서 공통감각(common sense)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렌트는 바로 이 공통감이 판단을 하기 위해 의사소통하

---

6) Hannah Arendt, “Philosophy and Politics”, *Social Research*, vol. 57, no. 1(1990), 80. 이하 “PP”로 약함.

는 것을 가능케 해주는 근거가 되며, 이를 통해 인간은 의사소통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고 본다.<sup>7)</sup> 이런 점에서 어느 화자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청자가 그것을 청취하여 판단하는 동안에 그들 사이에는 공통감에 바탕한 의사소통적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말을 하는 행위는 “고립 속에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으며”, 말을 하지 않고 “고립된다는 것은 행위능력을 박탈하는 것”<sup>8)</sup>과 같다. 한 사람의 말은 타인과의 밀접한 연계망 속에서 존재하며, 그럼으로써 말은 가장 정치적인 행위인 것이다.

요약하면, 정치적 말의 목적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면서 설득하는 데 있으며, 이때 화자의 의견은 단순히 자의적이지 않고 비록 개별적 개성을 드러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공동세계를 바탕으로 하는 말이다. 또한 화자가 그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판단이라는 정신작용을 하는데, 이것은 자기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라 자신 외에도 발언한 화자나 다른 청자들과의 공통감 속에서 내리는 판단이다. 이와 같이 의견주장과 설득을 행하고 그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화자와 청자는 모두 공동의 의사소통 공동체의 일원이 되며 따라서 말은 가장 정치적인 행위이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와 같이 말을 통한 의사소통적 행위가 인간의 정치적 삶의 특권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 이후 의견과 설득은 더 이상 중시되지 않았다. 아렌트가 보기에, 원래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는 그리스적 전통 속에서 대화를 통하여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그가 사용했던 산파술(*maieutic*)<sup>9)</sup>은 사람들의 의견을 논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

7) Hannah Arendt, *Lecture's on Kant's Political Philosophy*, ed. Ronald Beine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69-71.

8) Hannah Arendt, *HC*, 188.

9) 아렌트에 의하면, 플라톤은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을 변증법(*dialectic, diallegesthai*)이라 칭하면서 의견을 무시하고 진리를 발견하기 위



아니라, 그 의견의 진실성 속에서 진리적인 것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의도했다. 즉 산파술이란 사람들의 의견을 향상시키고 더 진실되게 만드는 방법인 것이다. 따라서 철학자란 단순히 철학적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며, 또한 그 철학을 무기로 삼아 도시를 지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다.<sup>10)</sup>

하지만 플라톤은 자기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법정에 피소되었을 때 산파술을 이용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실패하는 것을 보고 의견과 설득에 대해 회의를 품기 시작하였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실수가 법정에서도 여전히 일대일 방식의 산파술로 대화를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 방법으로는 다수의 재판관들을 동시에 설득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다수의 대중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의견을 드러내어 설득하기보다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absolute standard)을 내세워 아무도 반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만일 인간사의 영역에 절대적인 기준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 되며, 따라서 소크라테스와 같이 진리를 말하더라도 결국 인간사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은 상존하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플라톤은 “사람들을 설득함으로써 일시적인 선(temporal good)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람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진리(eternal truth)”<sup>11)</sup>를 부과함으로써 철학자의 진리가 통하게 되고 또 그것이 도시를 지배하게 되는 ‘진리의 전제정(the tyranny of truth)’을 기획하게 된다. 진리란 자명한(self-evident) 것이기 때문에 설득할 필요가 없이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따라서 폭력이라는 외적 수단을 사용하

---

한 방법론으로 왜곡시켰다.

10) Hannah Arendt, “PP”, 81.

11) Ibid., 78.

지 않고도 설득(persuasion)이나 주장(argument)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이성을 통한 강제에 도달할 수 있다. ‘진리의 전제정’은 한편으로 물리적인 폭력의 사용 없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설득의 어려움 없이 도시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은 경이(traumadzein), 즉 존재의 기적에 대한 놀라움에서 시작된다. 경이는 무엇을 응시하면서도 어떤 것도 보거나 들을 수 없는 완전한 부동의 상태에서 찾아오며 이러한 놀라움은 말을 필요없게 만든다. 즉 “경이에서 시작된 진리는 말문이 막히는 놀라움(speechless wonder)으로 끝난다.”<sup>12)</sup> 궁극적 진리란 말을 초월하는 것이다. 따라서 철학자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불필요하다고 느낀다. 철학자의 경이에 대한 경험은 말을 통한 대화 속에서도 아니라 타인과의 절대적 분리 상태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철학자는 복수의 인간(men)이 아닌 단수로서의 인간(man in singular)으로 존재하며, 단수로서의 인간은 더 이상 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sup>13)</sup> 이러한 철학자의 경험은 말을 필요로 하는 정치영역으로부터 벗어난다.

그 결과 철학적 경험과 정치적 경험은 분리되고, “사유하는 인간과 행위하는 인간은 각자 다른 길을 걷게”<sup>14)</sup> 된다. 그러므로 비록 철학에서 말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은 정치의 영역에서 사용하는 말과 다르다. 철학자가

12) Ibid., 99.

13) 옹(Walter J. Ong)에 의하면, 대화의 중요성이 인지되지 않는 이유는 구술문화(orality)의 쇠퇴와 관계가 깊다. 구술문화에서는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데 비해, 문자문화(literacy)에서는 대화상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나의 저작도 남기지 않은 소크라테스의 철학과는 달리, 플라톤 이후의 철학은 문자문화에 의존하고 그럼으로써 대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 없이 선형적 진리성을 추구하는 철학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Cf. Walter J. Ong, *Orality and Literacy: The Technologizing of the Word*(New York: Metuen, 1982).

14) Hannah Arendt, *HC*, 17.

사용하는 말은 사유 속에서 발견한 진리를 설파하고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말이다. 정치행동가의 말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반면, 철학자의 말은 객관적인 진리를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 두 경우에 공통적인 것은 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와 달리 정치적인 말은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공동의 세계를 구성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드러나는 세계를 의견으로 제시하는 말이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설득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말이다.

진리란 사람들 ‘사이(between)’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위(above)’에 군림하면서 그 자체로 존재한다. 또한 진리는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척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타당성을 얻기 위해 의견의 지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진리는 비정치적(unpolitical)이다. “진리는 의견을 파괴하고 시민들의 고유한 정치적 실재를 파괴”<sup>15)</sup>한다. 진리를 추구하는 댓가는 의견을 억압하는 것이고 따라서 의견의 다원성과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세계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단수로 존재하는 철학자는 정치적 인간이 아니라 결국 지배자로 군림하게 된다. 원래 행위(action)는 그리스어 archein(beginning)과 prattein(achieving)에 어원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 사람이 시작한다는 뜻과 다수가 참여하여 실행한다는 뜻이 결합되어 있다. 그러나 ‘진리의 전제정’을 추구했던 플라톤은 시작한다는 뜻과 실행한다는 뜻을 분리시키면서 시작을 지배로 연결시킨다. 즉 행위란 시작하는 자가 자신이 시작했던 일의 완전한 주인으로 머물면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타인을 설득하거나

---

15) Hannah Arendt, “PP”, 90.

타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이 그 일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여 타인들로 하여금 단지 그에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플라톤은 정치의 본질을 “시의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가장 위대한 형태로 시작하고 지배하는 방법을 아는 것”<sup>16)</sup>이라고 규정한다. 즉 정치란 진리를 아는 자가 그것에 기준하여 어떤 행위를 시작하고 그 행위가 진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행위가 실행되어 성취될 때까지 상황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진리로서의 정치는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 지배는 비록 물리적 폭력(physical violence)과는 다른 형태이기는 하지만 강제(compulsion)를 부여함으로써 더 이상 말과 의견, 설득, 토론 등과 같은 정치적 행위를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리하여 진리라는 강제성의 지배가 물리적 폭력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진리의 폭력과 달리, 말을 통한 의견의 주장과 설득을 통한 의사소통 과정은 궁극적으로 사회의 진정한 권력을 형성하는 행위이다.<sup>17)</sup> 아렌트는 정치적 지배 양식으로서 권력(power, Macht)과 폭력(violence, Gewalt)을 구분한다. 여기서 폭력이란 집단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어느 정치지도자(혹은 철학자)가 그것을 통해 규범적 결정에 도달하고 집행하는 것으로서 자원들을 조작하거나 강제하는 수단적 힘을 의미하며, 반면 권력이란 피지배자들이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 동의하는 힘을 의미한다.

특히 아렌트는 권력을 한 사람의 소유물이거나 한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대신, “사람들이 함께 행동할 때 발생하며 사람들이 흩어지는 순간 사라져버리는”<sup>18)</sup> 것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공적 영역에서

16) Plato, *Statesman*, 305; Hannah Arendt, *HC*, 222에서 재인용.

17) 아렌트의 권력 개념과 그에 대한 하버마스의 수용 및 비판에 대해서는, 이동수, “하버마스에 있어서 두 권력”, 『정치사상연구』 제5집(2001), 163-168 참조.

함께 상호행동할 때 발생한다고 본다. 또한 권력이란 “단순히 사람들이 행동하는 능력이 아니라 콘서트적으로(in concert) 행동하는 능력과 상응한다.”<sup>19)</sup> 이때 콘서트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먼저 콘서트를 연주하듯이 다양한 말과 의견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이며, 또한 콘서트적인 것은 혼자 연주하는 것보다 여러 소리가 조화롭게 합쳐져 더욱 강렬한 소리를 낸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콘서트적이라는 말은 모인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화합하고 또한 전체 공동체를 강하게 만드는 것을 지칭한다.

이러한 권력이 없다면 의견을 주장하고 설득하며 그에 대한 판단행위를 하면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해 진다. 폭력은 공동체를 강제로 유지시키는 힘이며, 권력은 말과 대화, 그리고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는 힘이다. 아렌트는 권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먼저 정치공동체의 기저에 놓여 있다가 후에 그것을 죽이게 되는 것은 권력을 잃어버려서 궁극적으로 무기력해질 때이다. 권력은 폭력의 도구들처럼 저장되어지거나 위급한 때를 위해 미리 준비되어질 수 없다. 권력이 실현되어지지 않는 곳에서 권력은 사라지며, 역사는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이라도 이 권력의 상실을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예들로 가득 차 있다 ... 권력은 공적 영역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며,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잠재적 공간을 실존하게 해주는 것이다.<sup>20)</sup>

그러나 아렌트에 의하면, 역사는 권력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대신 폭

---

18) Hannah Arendt, *HC*, 200.

19) Hannah Arendt, *On Revolution*(New York: The Viking Press, 1965), 71.

20) Hannah Arendt, *HC*, 200.

력-물리적 폭력 혹은 진리적 폭력-을 통해 강제로 전체사회를 통제해 온 과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 본 플라톤의 ‘진리의 전제정’이 그러한 시도였으며, 현대사회의 전체주의적(totalitarian) 국가들-예컨대 나찌주의 국가, 스탈린주의 국가-은 단순히 폭군에 의한 지배체제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탈정치화시켜 그들 상호간의 말과 의견이 출현하는 의사소통적 행위를 못하게 하는 체제였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전체주의적 국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중민주주의(mass democracy) 국가의 기저에서 발견된다. 대의민주주의나 정당제도 모두 지나치게 관료화된 공적인 행정체계, 정당, 이익집단들의 매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삶을 강화시키고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을 뿐이다. 현대 자유민주주의는 실제적으로 공적 영역을 축소시키고 개인들의 사적 삶만 강조함으로써 여전히 의사소통적 상호행동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권력과 정치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정치평론에게 주어진 임무는 막중하다. 진정한 정치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폭력과 진리의 전제정을 넘어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설득하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제공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의사소통적 권력(communicative power)’<sup>21)</sup>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lexis’로서의 말을 통한 정치행위의 활성화 즉 정치평론이 요구되는 것이다. 요컨대 아렌트적 의미의 정치

21) 아렌트 자신이 직접 ‘의사소통적 권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이 용어는 하버마스가 아렌트의 권력개념에 의사소통적 요소가 농후하다고 해서 ‘의사소통적 권력’이라 칭한 것이다. 필자는 이런 하버마스의 개념 규정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이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Jürgen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Contributions to a Discourse Theory of Law and Democracy*, tr. William Rehg (Cambridge: The MIT Press, 1996), chap. 4. 이하 *BFN*으로 약함.

평론이란 정치현상에 대해 주관적·개별적 의견을 말하고 그것을 공통감에 바탕하여 설득 및 판단을 통해 하나의 의사소통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정치적 행위인 것이다.

### Ⅲ. 하버마스에 있어서 말의 ‘logos’ 차원

앞 절에서 우리는 정치적 말에 관한 아렌트의 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렌트에 있어서 정치행위로서의 말은 진리추구적·철학적 말이 아니라 시민들이 화자의 입장에서 각자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공통감에 호소하면서 설득하고, 다른 한편 청자로서는 공동세계 속에서 판단하는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화자와 청자 모두 의사소통 공동체를 만들어 그 공동체를 물리적 폭력이나 진리적 폭력이 아닌 의사소통적 권력을 통해 구성하는 ‘lexis’적 말을 일컫는다.

그런데 ‘의견들의 다원성(plurality of opinions)’을 추구하는 의사소통적 행위와 콘서트적으로 행동함으로써 형성되는 권력을 통해 의사소통적 공동체가 형성된다손 치더라도,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때 정책결정과 그 집행이 자의적이거나 강제적인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적 공동체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은 의견에 근거해야 하며, 따라서 의사소통 행위는 개인적 의견의 차원을 넘어서 합의(consensus)를 통한 공적 의견 혹은 공론(public opinion)의 수준에 도달할 것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의 주장과 설득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의견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이해’라는 보다 높은 차원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것은 말의 보다 보편적인 속성과 구조를 전제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 행위로서의 말은 ‘lexis’적 속성뿐만 아니라 ‘logos’적 성격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요구되는 ‘logos’는 앞에서 살펴본 플라톤적 의미의 ‘logos’, 즉 진리를 찾아 그것을 강제하는 경직된 ‘logos’가 아니라 주관적 의견이 공적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필요한 언어적 조건으로서의 ‘logos’이다.

이러한 ‘logos’를 의사소통적 ‘logos’라 할 수 있으며, 필자는 하버마스가 말하는 언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사소통적 이성(communicative reason)’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이성이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소통되고 설득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언어적 해석공동체가 공통의 이해에 도달하여 어느 주장을 타당한 것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에 관계되는 이성으로서, 하나의 주관적 의견이 언어를 통해 타자들에게도 공적 의견으로 수용되는 보편적 조건을 규정하는 것과 관계된다. 이 절에서는 하버마스의 논의에서 정치적 말의 ‘logos’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측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하버마스는 말이 episteme적이기보다는 doxa적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그는 의견을 말하는 것이 상호 이해되고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성(facticity)에 바탕을 둘 뿐만 아니라 타당성(validity)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소위 진리적 언어에는 타당성은 있을지언정 사실성은 결여되어 있고, 말의 ‘lexis’적 속성은 사실성은 갖고 있을지언정 타당성을 담보해주지는 않는다. 이와 달리 사실성과 타당성을 보유하고 있는 상호이해와 합의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말의 ‘logos’적 차원이 필요하며 이것은 말하자면 앞서 살펴본 아렌트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공통감각이 형성되는 ‘logos’적 조건과도 같은 것이다.

하버마스는 말의 사실성과 타당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화용론(pragmatics)의 입장에서 언어를 바라본다. 화용론이란 통사론(syntax)이나



의미론(semantics)과는 달리, 언어뿐만 아니라 언어사용자들을 변수로 도입하여 언어의 측면을 연구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하버마스가 보기에, 단순한 경험화용론(empirical pragmatics)은 경험적이고 제한된 의사소통의 조건만 따지기 때문에 담론적 사회철학을 정초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비해, 보편화용론(universal pragmatics)은 가능한 모든 의사소통의 조건을 밝힘으로써 언어가 성공적으로 유통되는 데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전제조건들을 해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편화용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버마스는 오스틴(J. L. Austin)과 서얼(J. Searle)의 언어행위이론(speech act theory)에 의존한다. 우선 서얼에 의하면, 의사소통의 기본단위는 상징이나 단어 또는 문장 자체가 아니라 언어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의 상징, 단어, 문장의 생산 또는 발화이다. 달리 말하면, 언어행위이론은 언어를 관찰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함으로써 무엇인가 하게 된다는 점에 관심을 집중한다.

한편 오스틴은 언어행위를 발화 행위(locutionary act), 발화수반 행위(illocutionary act), 발화효과 행위(perlocutionary act)로 구분한다. 이때 발화행위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할 때 어떤 것을 말하는 행위를 일컬으며, 발화수반 행위란 말함으로써 화자와 청자 사이에 어떤 상호적인 인간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말하고, 발화효과 행위란 화자가 행한 언어행위의 결과로 성취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말을 통해 화자와 청자가 어떤 인간관계로 진입해 들어가게 하는 힘을 발화수반력(illocutionary force)이라 부른다.

여기서 하버마스는 보편화용론의 핵심이 발화수반력에 있다고 본다. 즉 언어행위가 이해에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는 발화수반력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특히 언어행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청자가 발화된 문장의 뜻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화자가 의도한 상호관계 속에 진입”<sup>22)</sup>해

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행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의사소통 과정이 요청된다. 주지하다시피, 하버마스는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합리성을 이해가능성(understandability), 진리성(truth), 성실성(appropriateness), 정당성(rightfulness)이라는 ‘타당성 요구(validity claims)’로 설명한다.

요컨대 하버마스에 있어서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어느 언어적 표현에 대해 그 의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보편적으로 수긍될 수 있도록 그것을 ‘상호이해’의 수준에서 정당화하여 참된 의미로 확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점에서, 언어는 단순히 하나의 주관적 의견을 자의적으로 청취하고 내 나름대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적어도 청자와 화자가 그 발언된 말의 의미를 어떤 상호합의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logos’적 차원이 개입되어 있다. 즉 말이 이해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청자와 화자간의 합의를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성과 타당성』에서 하버마스는 언어철학의 논리를 따라 자신의 견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는 먼저 프레게(G. Frege)의 논리를 따라 ‘표상(representation)’과 ‘사상(thought)’을 구분한다. 프레게에 의하면, 표상이란 특수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표상주체에게만 귀속되는 언어행위인데 비해, 사상은 개인적인 의식의 경계를 넘어 상이한 주체들이 상이한 시간과 장소에서도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측면을 가리킨다. 언어의 표상작용 속에서는 단지 대상(object)만 존재하지만, 사태(a state of affairs)나 사실(fact)은 사상을 통하여 파악된다. 표상은 하나의 명사나 호칭, 지시어를 통해 개별적인 대상만 표현하지만, 사상은 하나의 명제적 구조로서 사태나 사실을 재현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언어의 사상적 측면은

---

22) Jürgen Habermas, “What Is Universal Pragmatics?” *Communication and the Evolution of Society*(Boston: Beacon Press, 1979), 59.

개인적인 체험이나 의식과는 독립적으로 상이한 시간과 장소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하며, 이것은 또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기호와 문법적 표현을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sup>23)</sup>

그러나 하나의 사상이 진술 속에서 표현될 때에는 동일한 언어기호와 문법사용에 의한 개념과 의미의 일반성에 대한 가정 외에 또 하나의 언어적 차원으로서 그 사상의 진위 여부가 동시에 제기된다. 요컨대 문장으로 표현된 하나의 사상은 그것이 참된 것으로 인정될 때에만 타인들에게 수용될 수 있다. 즉 한 사상의 내용이 참일 때에만 그 사상은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이를 퍼스(C. S. Peirce)의 견해에 따라 ‘타당성(validity)’의 차원이라고 말한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어느 화자가 “이 공은 붉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가정하자. 만일 이 진술을 단지 문법적인 규칙구조가 만들어내는 개념과 의미의 차원에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동일한 의미로 그 문장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나타낼 뿐이다. 그러나 타당성의 차원에서 이 진술을 “공이라는 대상이 적어도 하나 있으며 그것이 붉다는 말이 타당하다”라는 말로 확장해보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진술은 이해된다. 즉 이 진술이 의미하는 바는 여기에 공이라는 대상이 ‘실재’하며 그것이 붉다는 것이 ‘사실’임을 표현하는 것이다. 또 이 진술은 단언적(assertive) 언어행위의 차원에서는 “나는 공이라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것이 붉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공은 붉다”라는 진술은 단순히 의미론의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붉은 공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진리주장을 그 속

---

23) Jürgen Habermas, *BFN*, 10-12.

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sup>24)</sup>

따라서 타당성의 차원에서는 참된 진술(true statement) 속에서만 실재하는 것이 드러나며, 이때 참이라는 말은 화자가 제시한 명제가 청자에게 참된 것으로 인정될 때에만 그 명제가 성립된다. 달리 말하면, 화자의 주장을 청자가 합리적으로 수락했을 때 그것이 참이 된다는 것이다. 화자는 진술 속에서 청자에게 자신의 주장이 참임을, 즉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제시하고 청자에게 왜 자신의 주장이 참인지에 대한 적절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청자가 화자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수용했을 때에만 그것은 참된 주장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적인 타당성 요구의 과정을 통하여 화자와 청자는 상호주관적인(intersubjective) 합의에 이르게 되고, 그 결과 원래 갖고 있던 자신의 입장을 초월하여 합의된 보편적인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이성을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대화 상대자들이 상호적인 ‘타당성 요구’의 과정을 통하여 규범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가정한다. 달리 말하면, 의사소통적 이성은 초월적인 진리를 가정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개인의 서로 다른 가치 기준에서 나오는 주관적 의견을 넘어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에 있어서의 규범에 대한 합의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말은 단순히 사실적 차원에서의 주관적인 견해표시가 아니라 상호주관적인 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공적 상호이해의 합의과정의 차원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말의 ‘logos’적 차원인 것이다.

이러한 ‘logos’적 차원 때문에 말은 단순히 개인의 의견을 표시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공동의 합의된 의사로 상승할 수 있으며, 이렇게 사회적으로

---

24) Ibid., 12-13.

로 합의된 의사를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법이다. 따라서 주관적 의견을 공적 의견으로 만들고 그것을 계속 체계화의 틀 속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컨대 의사소통적 행위를 통한 의사소통적 공동체의 최종적 정치행위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개인의 의견을 주장하고 설득하는 ‘lexis’적 말은 비록 진리적이지는 않지만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타당성을 바탕으로 합의되어 공적 의견으로 상승하고 그것이 법의 제정에까지 이르는 ‘logos’적 차원까지 결합함으로써, 공론장(public sphere)에서 말이 갖는 중요성은 극대화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은 공론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토의하거나 정치평론적 행위를 하는 말의 정치를 수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때 정치평론은 다양하고 다원적인 개인들의 의견을 토론(debate)과 토의(deliberation)를 통해 공적 의견(public opinion)으로 합의해가는 언어적·의사소통적 행위로서 언어의 ‘lexis’가 의사소통적 ‘logos’와 더불어 나타나는 정치적 행위이다. 따라서 개인의 주관적 의견 개진으로 시작된 정치평론의 장은 “개인의 다양한 의견에 열려 있으며(open), 공적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참여자들(participants)이 상호협력하는(collaborating) 일종의 토론장(forum) 혹은 경연장(arena)”<sup>25)</sup>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하버마스에 있어서 정치평론이란 시민들이 공론장에서 자신의 의사를 말하고 서로 논쟁하는 의사소통적 행위를 통해 공적 의견을 형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생활세계의 시민들은 이런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를 통해 비로소 정치적인 주재자(author)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lexis’는 언어적 ‘logos’로 승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

25) Ibid., 361.

## IV. 결 론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렌트에 있어서 정치란 시민들이 ‘lexis’적 말과 행위를 통해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설득하는 한편 공통감에 근거하여 그것을 판단하는 의사소통적 과정 속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힘은 의사소통적 권력으로서 공동체를 강제로 엮으려는 의도를 지닌 폭력이나 진리의 전제정과는 구별된다. 둘째, 하버마스는 ‘lexis’로서의 말이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상호 이해되기 위해서는 타당성의 요구가 필요하며, 또 주관적인 의견의 다양성을 넘어 공론장에서 공적 의견으로 합의되기 위해서는 말의 ‘logos’적 차원 즉 의사소통적 이성이 포함된 말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말의 최종적 결과물은 법의 제정이며 공론장은 토론과 토의를 통해 합의와 자기입법(self-legislation)에 이르는 토론장이다.

필자는 정치평론이 정치평론다워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아렌트와 하버마스적 의미가 서로 결합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정치평론에서의 말은 아렌트적 ‘lexis’와 하버마스적 ‘logos’의 두 차원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평론은 현실세계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말로 그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세계의 언어들, 즉 구술어와 여러 의견들과 같은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원-자료로서의 말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다른 한편 그 의견들이 상호이해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틀로서의 ‘logos’ 차원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의 ‘lexis’적 차원에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의견의 개진이 중요하다. 다양한 doxa를 하나의 episteme로 바꾸려는 시도는 아렌트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진리의 전제정’을 초래하기 쉽다. 하버마스가 말하는 언어의 ‘logos’적 차원에서도 이런 진리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언어의 ‘logos’적 성격이란 말의 ‘lexis’적 차원의 진실성(truthfulness)에 있다는 점이다. 즉 ‘lexis’로서의 말이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갖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사태에 대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말하고, 그 말이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위한 것이며, 이러한 진실성과 진정성이 타인에게 상호이해될 때에만, 어떤 합의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다. 이때 합의의 내용은 의사소통과정의 결과물일 뿐이지 그 전제조건은 아니다. 하버마스적 ‘logos’는 단지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언어와 언어조건에 내재하는 ‘logos’를 의미한다.

이러한 아렌트와 하버마스의 논의를 종합하여 정치평론에 대해 생각해 보면, 올바른 정치평론이란 일반대중들이 사적인 공간에서 나누는 정치에 관한 대화나 정치행동가들의 정치연설과 구분되며, 또한 정치사상가들이 탐구하는 정치에 대한 철학적 담론과도 다르다. 먼저 일반대중들의 정치에 관한 대화의 경우, 이는 화자의 정치에 대한 인식을 ‘lexis’적 차원에서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 언어의 ‘logos’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음으로써 타인과의 공감대 형성이나 합의를 지향하지는 않는다. 그 말을 듣는 청자들도 그것이 화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만 생각할 뿐 상호이해를 통한 공적 의견 구성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대화는 ‘정치에 대한 대화(dialogue on politics)’일 뿐 ‘정치적 대화(political dialogue)’는 아니며, 그런 점에서 정치평론이라 부르는 어렵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현실세계의 당사자로서 말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때 흔히 일어나는 현상은 자신의 입장을 타인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거나 변명하는 데 그친다. 여기서 발화된 말은 분명 ‘lexis’적 차원은 갖고 있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 자신의 ‘lexis’를 사회적이고 정당한 ‘logos’와 연관시키지 않음으로써 그 ‘lexis’의 진실성마저도 의심받을 수 있다. 아렌트가 지적한 것처럼, ‘lexis’

적 말은 자신의 의견을 설득하는 것이며 이 설득의 과정에서는 타인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타인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단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결국 말의 단절을 초래할 뿐이다.

한편 정치가나 정치행동가들의 연설이나 주장도 정치적 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논의된 ‘lexis’적 차원과 ‘logos’적 차원을 모두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도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한 바 있다. 아테네 민회에서의 의사소통은 토론보다는 주로 연설이라는 양식을 사용하는데, 이때 연설이란 서로 묻고 대답하는 2자 양식의 토론과 달리 연설자가 청중이라는 제3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3자양식에 의존한다. 이 경우 진정한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전달에 불과하다. 즉 연설자들이 원하는 것은 말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과 공동체 형성이 아니라, 수사(rhetoric)를 사용하여 청중을 휘어잡아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다.<sup>26)</sup> 이런 정치연설에서는 선동이 가능하고 따라서 데마고그들에 의한 정치적 농단이 난무한다. 이런 말의 정치 속에서는 공동선이 아니라 권력을 추구한다.

오늘날에도 정치행동가의 연설은 여전히 비소통적이다. 그런데 요즘은 정치인들이 TV토론이나 신문의 오피니언란 등을 통해 직접 정치평론적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경우에 있어서도 그들의 정치평론은 평론적이라기보다는 정치선전이나 홍보에 더 가깝다. 왜냐하면 이들의 정치평론은 타인과 상호이해를 하고 공공의견에 합의를 이루어나가려는 최소한도의 ‘logos’도 없는 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독자는커녕 토론자들끼리의

---

26) Aristotle, *Rhetoric*.



이해와 의사소통조차 시도하지 않으면서 그저 허무한 독백으로 끝나버리기 일쑤이며, 그런 점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정치가란 용어를 붙일 수 있는지의 문이다. 뿐만 아니라 말의 ‘lexis’적 차원도 갖고 있지 못하다.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진정성에 바탕하여 이야기 하는 대신, 정치인은 어떤 개인적·당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주의주장만 늘어놓는다. 이런 정치평론은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반감만 초래한다.

한편 정치사상가들의 정치에 대한 논의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lexis’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데 있다. 고매한 진리와 이상을 추구하는 정치사상가들은 현실정치로부터 거리를 두고 관찰하면서 이상적 정치에 대해 논한다. 그런데 이런 작업을 하는 경우 정치사상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주관적인 의견은 최대한 배제한 채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논리만 제시하려 한다. 이런 경우, 플라톤에서와 같이 청자들을 ‘진리의 전제정’ 속으로 몰아넣기 쉽다.

만약 정치사상가가 정치평론을 한다면 이 경우에도 자신의 경험과 현실에 대한 애정에서 우리나라의 것을 말하기보다는 너무 객관적인 사실이나 보편적인 진리에 입각해서 말하기 때문에 말의 진실성(truthfulness)과 진정성(authenticity)이 없어 보인다. 또한 정치평론을 통해 청자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계몽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평론에 대해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경우, 그들은 자신이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청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이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슴에 별로 와 닿지 않아서 그러는 것일 뿐이다. 요컨대 아렌트적 의미의 ‘lexis’가 결여되어 있어서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일반인들의 경우 정치에 대한 대화는 ‘lexis’적 요소가 있기는

하나 너무 주관적인 의견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logos’적 차원을 결여하여 공적 의견으로 승화되지 못하며, 정치행동가나 정치인들의 연설이나 정치평론은 자신의 주관적인 ‘lexis’를 청자들이 그대로 공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평론에 불과하다. 한편 정치사상가의 말과 정치평론은 지나치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logos’적 요소만 추구한 나머지 자신의 ‘lexis’가 없으며 따라서 청자들로 하여금 그 의견에 공감하거나 그것을 공적 의견으로 받아들여기를 어렵게 만든다.

이 경우들에 비하면 정치평론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언론인들의 정치평론은 그래도 가장 ‘lexis’와 ‘logos’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언론인의 정치평론의 경우에도 문제점이 나타난다. 우선 언론인들의 정치평론은 너무 직업적이다. 이것은 평론을 위한 평론이 되어 의사소통과 공론장 형성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또한 너무 평론을 직업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그것이 의사소통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토론장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데 전념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정치평론은 정보나 의견을 전달하는 전달의 장으로 전락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lexis’와 ‘logos’가 균형을 이루는 올바른 정치평론은 아직은 이념형에 그치는 것 같다. 여전히 현실에서의 정치평론은 정치평론이라기보다는 정치선전, 정치정보의 전달, 정치적 진리에 입각한 주의주장, 정치적 계몽, 정치적 당파의 이해반영 등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정치평론이 의사소통적 공동체의 형성과 그 공동체 속에서 토론과 토의의 활성화라고 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그러나 민주화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인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열정은 대단하다. 다만 이 관심과 열정을 ‘lexis’와 logos가 합쳐진 정치적 말을 통한 소통과 합의 그리고 공동체 통합의 길로 잘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찾아보아야 할 것 같다.

## 참고문헌

- 김대영. 2002. “정치평론과 민주적 공론장: Koestler, Orwell, Lippmann에 관한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 김비환. 2001. 『축복과 저주의 정치사상: 20세기와 한나 아렌트』. 서울: 한길사.
- 김선욱. 2002. 『한나 아렌트의 정치판단이론』. 서울: 푸른숲.
- 김주성. 2008. “심의민주주의인가, 참여민주주의인가?”, 『한국정치학회보』 42집 4호.
- 김홍우. 2007. 『한국정치의 현상학적 이해』. 서울: 인간사랑.
- 이동수. 2007. “민주화 이후 공화민주주의의 재발견”. 『동양정치사상사』 제6권 2호.
- \_\_\_\_\_. 2006. “한나 아렌트와 한국정치: 권력정치에서 소통정치로”. 『철학과 현실』 제71집.
- \_\_\_\_\_. 2001. “하버마스에 있어서 두 권력”. 『정치사상연구』 제5집.
- \_\_\_\_\_. 2001. “함석헌과 정치평론”. 『한국정치학회보』 35집 4호.
- 장명학. 2002. “한나 아렌트의 공동권력과 정치”. 『한국정치연구』 제11집 제2호.
- 장춘익 외. 1996. 『하버마스의 사상: 주요 주제와 쟁점들』. 서울: 나남.
- 정호근 외. 1997. 『하버마스: 이성적 사회의 기획, 그 논리와 윤리』. 서울: 나남.
- Arendt, Hannah. 1958. *The Human Con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65. *On Revolution*. New York: The Viking Press.
- \_\_\_\_\_. 1982. *Lectures on Kant's Political Philosophy*. Ed. Ronald Beine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90. “Philosophy and Politics”. *Social Research*. Vol. 57, No. 1.
- Aristotle. *Rhetoric*.
- Bakhtin, Mikhail. 1981. *The Dialogic Imagination: Four essays by M. M. Bakhtin*. Ed. Michael Holquist and trs. Caryl Emerson and Michael Holquist.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Benhabib, Seyla. 1986. *Critique, Norm, and Utopia: A Study of the Foundations of Critic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Calhoun, Craig. 1992. *Habermas and the Public Sphere*. Cambridge: The MIT Press.
- Canovan, Margaret. 1992. *Hannah Arendt: A Reinterpretation of Her Political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llamayr, Fred R. 1984. *Language and Politics: Why Does Language Matter to Political Philosophy*.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Deflem, Mathieu. 1996. *Habermas, Modernity and Law*. London: Sage Publications.
- Habermas, Jürgen. 1979. "What Is Universal Pragmatics?" *Communication and the Evolution of Society*. Boston: Beacon Press.
- \_\_\_\_\_. 1983. "Hannah Arendt: On the Concept of Power". *Philosophical-Political Profiles*. Cambridge: The MIT Press.
- \_\_\_\_\_. 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1. Tr. Thomas McCarthy. Boston: Beacon Press.
- \_\_\_\_\_. 1989.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Trs. T. Burger and F. Lawrence. Cambridge: The MIT Press.
- \_\_\_\_\_. 1996. *Between Facts and Norms: Contributions to a Discourse Theory of Law and Democracy*. Tr. William Rehg. Cambridge: The MIT Press.
- Ong, Walter J. 1982. *Orality and Literacy: The Technologizing of the Word*. New York: Metuen.
- Parekh, Bhikhu. 1981. *Hannah Arendt and the Search for a New Political Philosophy*. Atlantic Highlands: Humanities Press.
- Plato. *Statesman*.
- Young-Bruehl, Elisabeth. 1982. *Hannah Arendt: For Love of the Worl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Abstract】**

## ‘Lexis’ and ‘logos’ in Political Criticism

Lee, Dongsoo(Kyung Hee University)

There are political actor, political thinker, and political critic who constitute the political world. They perform their own political acts through political words. While political actor’s words are kinds of rhetoric mobilized for the other end, and while political thinker’s words pursue the excessively objective truth, political critic’s words contribute to making consensus and building a community by transforming his own subjective opinion into public opinion by getting sympathy with and inducing support from the mass. In order to be such an ideal type, however, political criticism needs to combine the dimension of ‘lexis’ in language H. Arendt argued with and the dimension of ‘logos’ in language J. Habermas emphasized. Put differently, political criticism should have the authenticity and truthfulness of words and communicative reason by which mutual understanding and consensus are made. Unfortunately, however, there are still lots of limits in the reality in that the political criticism of the mass and politicians lack in the dimension of ‘logos’ and that of political thinkers and intellectuals miss the dimension of ‘lexis’.

Key Words: political criticism, language, ‘lexis’, ‘logos’, Arendt, Habermas

접 수 일: 2010년 9월 5일  
심 사 일: 2010년 9월 13일  
게재 확정일: 2010년 10월 5일